

# 김용민브리핑

2016년 11월 7일 월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mailto: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b>아름다운재단</b>	<a href="http://www.beautifulfund.org">www.beautifulfund.org</a>
전통방식 속살!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b>알싸한홍어</b>	<a href="http://alssahan.co.kr">alssahan.co.kr</a>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b>정성농장홍삼</b>	<a href="http://jeongseongfarm.com">jeongseongfarm.com</a>
안티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b>비타샵</b>	<a href="http://vitashop.co.kr">vitashop.co.kr</a>
예쁜 구멍이 쏠!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b>미궁장사랑</b>	<a href="http://jangsarang.com">jangsarang.com</a>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b>수아비스화장품</b>	<a href="http://www.suavisslab.com">www.suavisslab.com</a>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b>풍무양고기</b>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즈프리카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b>매트리스엠</b>	<a href="http://www.mattressm.com">www.mattressm.com</a>
진보가 만든 상품판매몰은	032-519-4800
<b>내피알</b>	<a href="http://nepr.co.kr">nepr.co.kr</a>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a href="https://facebook.com/tartfarm13">facebook.com/tartfarm13</a>
<b>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키텍스점</b>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b>이담채김치</b>	<a href="http://edamche.com">edamche.com</a>
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	010-5633-6036
<b>메이드바이어스</b>	<a href="http://madebyus.co.kr">madebyus.co.kr</a>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b>전창걸의새싹땅콩차</b>	<a href="http://전창걸.com">전창걸.com</a>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b>좋은사람과플라워</b>	<a href="http://flowergood.co.kr">flowergood.co.kr</a>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b>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b>	<a href="http://cafe.daum.net/7000kim">cafe.daum.net/7000kim</a>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b>와우전복</b>	<a href="http://wowabalone.modoo.at">wowabalone.modoo.at</a>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b>연지연곰탕</b>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 박근혜 있으면 수사 안 된다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씨가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조사를 받는 와중에 팔짱끼고 웃는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조선일보 카메라에 노출됐습니다. 그 옆에서 검찰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두 손 모으며 공손하게 우병우 씨를 응대하는 모습도 포착됐고요. 일반 피의자로서는 상상도 못할 포즈 또 대접입니다. 그 안에서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뤄졌을지도 의심들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젯밤 9시 25분 상황입니다.

우병우 씨는 검찰에 소환돼 포토라인에 섰을 때엔 사과나 유감 같은 말은 입에 울리지 않았고요, '가족 회사 자금을 유용했느냐'는 질문을 했던 KBS 기자를 한동안 쏘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검찰은 또한 최순실 대역 논란에 휘말려 있습니다. 소환될 당시 모습과 긴급 체포된 후 서울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 서로 다르다는 게 논란의 요체지요. "쿠데타 높아졌다", "쌍꺼풀이 다르다", "주름이 줄고 머리숱이 많아졌다" 누리꾼은 많이 접해보셨을 주장입니다. 빈 박스를 들고 마치 대단한 무게의 자료를 압수한 것인 양 쇼를 한 것도 이 같은 불신을 가중시킨 작지만 큰 이유가 됩니다. 검찰 수사가 공명정대하게 이뤄진다면 그 이전에 이 수사와 관련해 주목 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검찰이 지금과 같은 수모를 당하고 있을까요?

이런 검찰은 피할 시간 또 숨길 시간 아울러 조작할 시간을 충분히 쥐 가며 불과 며칠전만해도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권력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차피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극도로 허약한 검찰에게서 진실 규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통해 새로 수사하는 것과 아니면 죽은 권력 수사하는 것에는 투지와 저력을 보여주는 검찰의 속성을 감안해 정권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씨가 그간 보여준 행태를 감안할 때, 처음에는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척 하다가 여론의 관심이 빠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휘방하는 태도의 재탕이 충분히 예견됩니다. 이런 박근혜 씨에게 권력이 부여되는 현실 자체가 그릇된 것입니다.

11월 12일 토요일 100만 넘는 시민이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박근혜 권력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무너뜨려 새 세상을 가꿉시다.

###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1월 7일(월) 1부 | "175만명 모이면 박근혜 퇴진"...3.5%의 법칙"

[오프닝] '황제 소환' '대역 논란'...현 검찰 수사 어찌 만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새누리 기반 붕괴 위기감...내분격화에 지지층 탈당 급러시

-최순실 '대통령 행세'... 국무회의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기업은 뺄까? '특혜' 드러나...박근혜 뇌물죄 가능

-이미경, 청와대 퇴진 압박받고 "내가 무슨 죄파냐" 토로

-여기저기서 2선 후퇴 요구하지만...박근혜, "그럴 의사 없다"

[뉴스듣기능력평가] 1960년 4월 19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인구 3.5%가 비폭력 시위해 정권 안 무너진 경우 없었다"

-백악관 대변인 "어느 정권이든 한미동맹" 발언의 맥락은?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투사 백남기의 죽음'...무의식 상태의 그가 '병석'에서 한 일

-[월요 경제학] 공유지의 비극, 20만 시민의 '평화 집회'

[공화국 논평] 이정현 사퇴 주장하는 정진석에 대한 조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제 오늘은?

東亞日報 崔, 국무회의 관여하며 대통령 행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복구했다. 녹음파일에는 최순실이 지난해 말까지 국무회의를 포함한 정책 현안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내용이 들어있다. 여기에 더해 최순실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 등을 함께 지시했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절대적으로 복종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순실이 청와대 비서관을 수족처럼 부리며 사실상 대통령 행세를 한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최순실이 지난해 말까지도 국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긴 통화 기록도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점이다. 최순실이 국무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최순실임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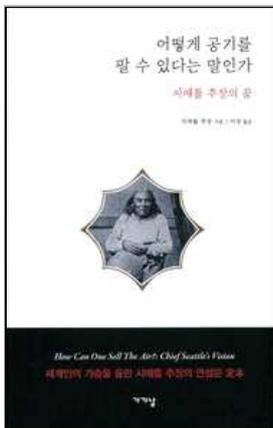
한겨레 포스코에도 60억 지원 요구한 최순실

최순실의 개인회사 '더블루케이'의 대표 조 모 씨는 올해 초 포스코 황은연 사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조모 대표는 포스코에 배드민턴 팀 창단을 욕구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했다. 포스코 측의 거절의 이유는 배드민턴팀 창단 비용은 많아야 15억원 정도인데, '더블루케이'에서 그 서너 배 금액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최순실 쪽의 요구액이 50억에서 60억에 달한 것이다. 이후 포스코는 최순실 측 관계자들과 몇 차례 더 만나 지원 문제를 협의했다. 하지만 올해 4월 케이스포츠재단에 19억원의 출연금을 낸 뒤에는 추가 논의가 없었다.

박근혜와 대기업의 밀월 관계

朝鮮日報 박근혜와 재벌 총수들, 밀담 나눠

검찰 특별수사팀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집에서 총 4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휴대전화에서는 대통령 박근혜 씨가 재벌 총수들과 독대 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자 메시지가 나왔다. 지난 7월 박근혜 씨는 재벌 총수 17명과 오찬 모임을 가졌는데 모임 이후 일부 재벌 총수들과 따로 면담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이 독대 의전과 관련해 청와대 부속실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다. 그러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독대는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씨와 재벌 총수들 사이의 대화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했다.



오늘을 읽는 책  
**어떻게 공기를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시애틀을 추장의 꿈  
시애틀을 추장 저, 이상 역, 가갯날, 2015

국민일보 대기업들은 국정농단의 공범이다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이후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된다. 먼저 삼성그룹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헤지펀드의 공격에 시달렸다. 하지만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도움으로 합병에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는 별 성과 없이 마무리 되었고 SK 최태원 회장과 CJ이재현 회장은 모두 특별·사면복권 됐다. 이에 대기업들이 받은 혜택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대가와와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탄핵 이유 하나 더 추가

중앙일보 재벌 부회장도 '종북좌파' 라고 찢려

MBN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2013년 말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CJ 손경식 회장과와 통화에서 VIP, 즉 대통령의 뜻이라며 압력을 가했던 것이다. 이후 CJ 이미경 부회장은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권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예능 프로그램 'SNL' 등 CJ가 만든 콘텐츠가 좌파 성향이란 일부의 지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CJ 이미경 부회장은 "내가 무슨 좌파냐. 왜 물러나야 하느냐"며 주변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겨레 청와대의 CJ 협박, 이것만으로 탄핵감

청와대의 CJ 이미경 사퇴 압력이 사실로 드러났다. 여기에 대한 한겨레 사설 소개한다. "이 일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는 별개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권력자의 사적인 이해 때문에 국가권력을 무기 삼아 민간기업 경영활동에 깊이 개입한 것이다. 권력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말대로 대통령 박근혜 씨가 이를 지시했다면 그것만으로 탄핵감이다. 법치를 짓밟고 권력을 사유화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이 일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는 별개로 결코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진실한 사람? 기회주의자였겠지!

중앙일보 측근들 배신 “대통령이 지시했다”

어제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은 대통령 박근혜 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최순실의 평창올림픽 이권 개입과 관련해 대통령의 뜻을 운운했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진술은 역대 대통령 비리수사 당시 측근들의 태도와는 차이가 있다. 얼마전 자리에서 물러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렇게 비판했다. “전두환 정권은 장세동의 ‘맹목적 충성’,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동지의식’이라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 공직자들의 모습은 소명의식 없이 권력만 누리다 제 살길 찾는 이익집단의 특징을 보여 준다”

우병우의 뒷배는 누구인가?

朝鮮日報 우병우, 팔짱끼고 웃으며 조사받아

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별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75일 만이다. 그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사과나 유감 같은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는 대신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혐의를 묻은 기자를 한동안 쏘아보았다.



©조선일보

또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조사를 받기 전 윤갑근 고검장실에 들러 차 대접을 받았다. 윤갑근 고검장은 특별수사팀의 팀장이다. 심지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조사 도중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팔짱을 낀채 웃고 있었으며 검찰 직원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은 공손하게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모든 걸 잃고 권력욕만 남은 박근혜

朝鮮日報 “박근혜 씨는 2선으로 물러나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대통령 박근혜 씨의 두 번째 사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조선일보 사설 소개한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국민이 대통령 박근혜 씨의 국정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통령 주변과 최순실의 국정 농락을 보고서도 박근혜 씨가 아무 일 없었던 듯 권한을 행사해도 좋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박근혜 씨는 2선으로 물러서는 결단을 명확히 내리지 않고 주저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대로 이제 대통령이 총리 추천을 국회에 맡기고 그 총리에게 내치의 전권을 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친박 중진들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한다.”

한국일보 다 내려놓았다는 박근혜가 노리는 것

청와대 참모들은 박근혜 씨가 “다 내려놓았다”고 전하고 있지만 박근혜 씨의 ‘진심’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영수회담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박근혜 씨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여야 대표들을 만나 김병준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설득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다. 당장의 2선 후퇴는 박 대통령의 선택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뭐 당연히 하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겠지.

요동치는 대선지형

한겨레 새누리 내분격화에 지지층 이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의 확산으로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사무실에 당원들의 탈당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서울·수도권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의 당원협의회로도 탈당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책임론과 거취를 둘러싸고 내분이 격화되는 것도 지지층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당에 대한 실망감과, 새누리당 간판으로는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저변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앙일보 차 하야해도 지지체장들 출마 가능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 박근혜 씨가 하야를 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두 사람만 대선에 출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경우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 90일 내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 주장은 결국 하야 주장이 문재인 안철수를 위한 것으로써 다분히 대선을 위한 정략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문건을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정상적인 일정에 따른 대선이라면 현직 단체장은 대선 전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하야 상황에서는 선거 30일 전까지만 현직을 그만두면 된다고 선관위는 해석했다.

## 한국일보 반기문, 새누리 대신 제3지대 갈 듯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선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고수하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1위 자리를 내준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여권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제3지대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이 완전히 버림받게 생겼다. 이런 당에 반기문 총장이 오겠냐” 이렇게 말했다.

### 국민안전도 무당에게?

## 경향신문 박승주, 도심 곳곳 참석에 전생체험

YTN 취재결과 국민안전처 장관에 지명된 박승주 내정자가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곳곳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승주 내정자는 47차례에 걸쳐 전생 체험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신이 펴낸 책에서 박승주 내정자는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도 만났다고 주장했다. 박승주 내정자는 곳곳에 참석한 것에 대해 재능 기부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 대기업도 정부에 등 돌리기

## 한국일보 롯데, 사드 부지 못 주겠다고 버티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로 성주 롯데골프장이 확정 발표됐다. 국방부는 이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경기도 남양주시의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이에 국방부와 롯데 측은 양해각서를 맺어 협의를 했지만 최근 롯데 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롯데 골프장의 시세는 1000억원이 넘는데 국방부가 이를 800억원 이하로 추산하면서 남양주 국유지와 교환을 한다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롯데 측이 최근 국정 혼란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협상을 늦추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드 배치 부지를 내줄 경우 롯데는 중국 영업에서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된다.

### 오늘의 칼럼

## 한겨레 “박근혜라는 스크린을 넘어”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의 “박근혜라는 스크린을 넘어”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소개한다.

“얼마 전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선생님에게서 질문을 받았다. 요지는 ‘요즘 대통령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를 우리가 너무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되냐’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는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했는데, 계속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이제 보수언론까지 가세해 넘쳐나는 ‘최순실 보도’를 우리가 어이없어하면서도 왕조실록 보듯이 어딘가 즐기고 있는 측면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를 억압하던 권력자의 민낯이 까발려져 그 왜소하고 추악한 모습이 드러날 때, 확실히 우리는 통쾌함을 느낀다. 하지만 대통령 하야라는 사태가 현실성을 띠기 시작한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박근혜를 주인공으로 한 막장드라마의 시청자로 있을 수는 없다. 이는 1987년 민주화운동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20만명이나 되는 이들이 거리에 나서서 박근혜 하야를 외치고 있는 현재 상황을 87년의 재현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 민주화의 성과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목도한 우리로서는 87년의 반복에 머무를 수가 없다. ‘87년 체제’는 왜 독재로의 회귀를 막지 못하고 이토록 쉽게 무너져 내렸는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생활문화 속에 뿌리깊이 남아 있는 일상적 권위주의를 바꾸지 못했다는 데 있다. 민주화운동의 승리라는 스펙터클 속에서 거시적으로는 민주화를 달성했지만 미시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충분히 실천되지 않았기에 그 민주주의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가 지금 벌이는 싸움도 ‘20만명’이나 ‘5%’와 같은 숫자로 수렴되는 한 시청자 인기투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으로도 박근혜를 하야시킬 수는 있겠지만,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독재를 가능케 했던 이 사회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가 진정 싸워야 할 대상은 청와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그 투쟁의 현장은 당연히 광화문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집중이라기보다는 확산이다. 박근혜 정권은 한국 보수의 역사를 집대성한 ‘작품’이다. 온갖 ‘찌꺼기’까지 긁어모아 겨우 성립시킨 것이기에 이 정권의 파탄은 한국 보수세력의 총체적 파탄을 의미한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숨으려고 할 뿐 대안을 내놓을 능력이 없다. 이제는 우리가 새 사회를 만들 차례다.”